

◇자연 혈기흉의 비디오 흉강경 수술

조덕곤, 분석환, 이선희, 조규도, 진웅, 박문섭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자연 혈기흉은 일종의 자연 기흉의 합병증으로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이다. 이 질환은 경우에 따라 즉각적이고 적절한 처치가 없으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. 근래 흉강경 수술의 발달로 외상으로 인한 급성 출혈환자 및 혈종의 잔재환자의 진단, 치료에도 흉강경 수술이 도입되어 왔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 혈기흉 환자에서 응급 혹은 일반 상태에서 비디오 흉강경 수술의 적용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95년 7월부터 1998년 5월까지 발생한 총 751례의 자연 기흉 환자중 자연 혈기흉으로 진단받고 비디오 흉강경 수술을 시행받은 10례[1.3%]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환자는 남자가 9명, 여자가 1명 이었으며 연령은 19세에서 36세까지로 평균 26.8세 였다. 흉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적응증과 응급수술 여부 및 수술결과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.

결과 : 10명의 환자중 6명[60%]에서 계속적인 흉관내 출혈 및 쇼크 증상으로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다. 나머지 3명[30%]의 환자는 흉관 삽관후 3일 이내에 혈종의 잔재로 인한 폐 확장의 방해로 수술을 시행하였고, 1명[10%]은 증상 발현으로부터 13일 경과된 환자에서 농흉 및 폐확장 장애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. 3일내 수술을 시행한 예들의 최초 흉관 삽관시 출혈량은 500cc 부터 2100cc로 평균 978cc 였으며, 5례에서는 수혈이 필요하였다. 수술 방법은 8례에서 폐기포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고, 1례는 폐기포 절제술 및 배농술과 부분적인 늑막 박피술을 시행하였으며 폐기포를 발견 할 수 없었던 1례에서는 지혈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. 수술중 출혈 부위를 관찰할 수 있었던 경우는 6례로 폐침부 벽측늑막의 유착부위 박리로 인한 과다 출혈로 생각되었으며, 그 중 2례에서는 벽측늑막의 뚜렷한 비정상적인 혈관[*aberrant vessel*]의 출혈을 발견할 수 있었다. 그러나 출혈 부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4례 였다. 수술시간은 평균 83 분이고 흉관 거치일은 평균 2.8일 이었으며 입원기간은 평균 4.6일 이었다. 모든 환자에서 수술후 합병증 및 재발은 없었다.

결론 : 자연 혈기흉의 주원인은 폐기포 부착 부위에 늑막유착의 박리 및 비정상적인 혈관의 파열로 인한 출혈이었다. 자연 혈기흉의 조기 수술적 치료가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며, 선택된 자연 혈기흉 환자에서 응급상태의 비디오 흉강경 수술은 치료의 유용한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.